

시

생각하는 나무

이 문 희

나는 몽상가답게 낙천적이죠
구름모자를 즐겨 써요
서서 먹고 서서 자는 동안에도 반짝반짝 사색을 즐기죠
이파리가 많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외롭지도 외로운 줄도 모르죠
뻑뻑한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덩굴장미는 용암의 뿌리에서 분출한 식물성 화산일까
바다가 파도 창고라면 하늘은 구름 공장일까
누가 저 많은 구름들을 저 날랐을까
매미에게는 몇 마력 울음의 엔진이 장착된 걸까
또 이런 생각도 해요
하늘에 갇힌 별들은 자유로울까
물고기는 어디를 날아가려 지느러미를 가진 걸까
무지개는 하늘 놀이터의 미끄럼틀일까 아니면 하늘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일까
나는 새들에게 의자를 내어주는 게 취미라면 취미
노래를 하고 싶거나
한바탕 춤을 추고 싶을 땐 바람 물이꾼이 되어요
매일매일 석양을 바라보며
서쪽이라는 당신에게 시를 지어 주죠
누구나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배낭 메고 여행 중인 달팽이를 만났다고 해서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겠다는 생각은 꺼주세요
오늘도 생각의 평수를 넓혀가는 나는 자유인이니까요
낮달에게 안개에게 늘 새로운 말을 걸어요
견느라 생각에 몰든 당신이라면
그늘에 잠깐 쉬어 가셔도 됩니다
나는 생각의 씨앗을 다 모아 땅에 뿌리려고 해요
파랗게 돌아나는 생각들을 환호하며 매만지게 될 거예요
나는 파란 마을 파란 집에 살아요

시 당선 소감

이문희 당선자

“시와 이별하려 했는데...나의 시를 믿고 계속 쓰겠다”



▲전북 전주 출생
▲2015년 계간 '시와 경계' 등단

아무렇지 않게 멀어지고 아무렇지 않게 가까워졌다. 나와 시가 그랬다. 그리고 딱, 애인이 그랬다. 나는 당신을 잊으려 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깨끗이 손 털고 끝내려 했다. 그렇게 당신에게 결별을 말하려는데 우리 다시 시작해, 라며 내 손목을 잡았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순간에는 차갑게 외면하더니, 이제와 우리 못 헤어진다요. 오년만의 화해라니! 나는 이렇게 저녁식탁에서 당선 전화를 받았다.

시의 언어들은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부유하던 날들이 많았다. 잡히는가하면 어느새 미끄러져 달아나고 쓸 수 없는 절망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까봐 두려웠다. 몇 번의 최종심은 차라리 독약

이었다. 희망고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독약을 삼켰고 그 희망고문으로 다시 도전했고 끝내 나의 시를 믿었다.

내 시의 최초의 독자인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통증의 마디인 어머니 안중모씨, 30년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충선씨, 이름을 불러봅니다. 제 이름 가운데에 글월문(文)을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원한 내편, 영숙, 인, 경, 미, 동, 림, 지, 혜. 고마워요. 그대들을 떠올리며 생각하는 나무가 될게요. 시로 인해 인연을 맺은 '전주 풍물시동인회' 시인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시를 전해주시는 심사위원들과 광주일보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푸르게 상상한 시 쓰겠습니다. 빛진 마음으로 세상을 읽겠습니다. 나는 계속 쓸게요.

시 심사평

장석주 시인

“시행을 끌고가는 능란함에서 내공 느껴졌다”



▲조선일보 신춘문에 등단
▲문학평론가-에세이스트
▲'에밀 시오랑'을 읽는 이후 등 다수

요즘 삶의 뻑뻑함을 반영한 탓일까. 삶의 끈빰과 우울한 정조를 애드루지 않고 보여주는 시들이 주를 이루었다. 응모작을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것은 시에 현실의 중압감이 고스란히 삼투된 까닭에서일 테다. 막장 현실에서 떨어져 나온 사유의 파편들, 소상공인들이 현실과 맞서 고투하는 모습들, 일그러진 현실이 불가피하게 불러온 꿈의 좌초를 다룬 시들이 눈에 자주 띄었다. 응모자들이 다 진지했지만, 개성이 돋보이는 자기의 목소리, 산술적 평균을 깨고 솟구치는 이미지의 돌발성, 사유의 도약으로 독자의 의식을 내리치는 죽비 같은 시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열 네 번의 작품들이 본심에 올랐는데, 최종심에서 검토한 것은 조지은 씨의 '이상한' 외 2편, 이진희 씨의 '생각하는 나무' 외 2편, 박시유 씨의 '영경귀' 외 2편, 김탄희 씨의 '쌍둥이자리' 외 2편 등이다. 조지은 씨는 상투성을 깨는 이미지와 감각의 돌출함에서 단연 돋보이고, 박시유 씨는 필진한 체험에서 길어낸 시적 진정성이 예사롭

지 않으며, 김탄희 씨는 투고작 '921'을 읽을 때 눈이 번쩍 뜨였는데, 모호함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에 묘한 매혹이 있었다. 현대 '921'이 소품이고, 다른 응모작들이 이 시를 받쳐주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다들 개성과 시적 수렴함이 또렷했지만 심사자가 당선작으로 고른 시는 이진희 씨의 '생각하는 나무'다. 시행을 끌고가는 능란함에서 만만치 않을 내공을 엿볼 수 있었다. 시편의 수준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두루 고른 점, 다른 응모작들과 견줘 시의 완성도에서 앞선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파리가 많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바다가 파도 공장이라면 하늘은 구름 공장일까/누가 저 많은 구름들을 저 날랐을까" 같은 시구들은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천진한 동화적 발상을 드러낸다. 각각의 시행이 품은 사유의 조각이 시의 전체와 유기적으로 맞물린 데서 더욱 돋보였다는 걸 밝힌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아깝게 떨어진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전한다.

지역영화 소식 한 눈에... '썬1980' 19호 나와

오직 '지역영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국 유일 지역영화비평지 '썬1980' (편집장 정찬혁) 19호(사진)가 최근 발간됐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펴낸 이번 호에는 광주독립영화관의 2024 결산, 개관 89주년을 맞은 광주극장 영화제 실태,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 결과 등이 실렸다.

진모영 감독의 영화와 삶 이야기를 담은 '딤포커스'를 비롯해 '절해고도'를 연출한 김미영 감독의 인터뷰 '춧불을 켜는 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섭 관장은 '최후의 공론장으로서 광주독립영화관의 시도들'을, 박지훈은 비평 '개축된 삶 내부에서 코메디처럼 산다는 것' 등 글을 발표했다.

시네스케이치와 픽N리슨 코너에서는 '한국어 잃어서'를 조명했으며 김미영 감독의 '춧불을 켜는 마음'은 클로즈업에서 다뤘다.

이외 '썬1980' 편집위원이 뽑은 올해의 영화 best5', 허지은의 '2007-2012 상상공작실의 영화적 여정, 전남대학교 영화제작동아리 '상상공작실'을 기억하며'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한편 영화잡지 '썬1980'은 광주·전남 영화기관·단체와 전국 영화인에게 정기 우송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광주극장과 소년의 서, 책과 생활 등에 무료 배포하며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이번 호에는



2024년을 장식했던 지역 영화제 소식을 비롯해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시네아스트, 시네필들의 다채로운 관점을 수록했다"며 "'시네마틱 뷰'와 '썬 2024' 등은 지역 영화 소식을 폭넓으면서도 면밀하게 다룬 코너들이다"고 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